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별지 2020년 5월 17일(주일) 제1295호

온누리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한다!

5월 11, 18일 주간 순예배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간담회 추후 '웨비나(Webinar)' 활용한 교회와 성도들의 쌍방향 의사소통도 실시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 온누리교회 당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목) “온누리미래위원회(위원장 윤영각 장로)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위한 순예배 간담회 및 교회와 성도들의 쌍방향 의사소통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가 준비 중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골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인식을 교회가 겸허하게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청년, 40대, 여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차세대 부모, 은퇴자 등 시대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려고 한다.

온누리교회가 성도들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월 11일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순장이 중심이 되어 온누리미래위원회가 제시해주는 토론주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면 된다.

토론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나의 일터, 직장, 가정, 학교, 취업과 진로)는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시기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불태우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불태우고 회복해야 할 부분(개인차원, 교회차원)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

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온누리교회와 성도 개인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이룩해야 할 변화와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둘째, 교회는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의견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파악한 다음 교회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과제들을 주제로 성도들과 쌍방향 의사소통 실시한다. 웹(web)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웨비나(Webinar)’ 등을 활용해서 발제자, 토론자, 청중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셋째, 교회가 고민할 시대적 과제들을 추려내고 논의한 다음 이를 세상과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온누리교회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순예배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먼저 공동체 담당목사가 순장교육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위한 간담회의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설명한다. 그 다음 온누리신문에 보도된 ‘순예배 간담회’ 관련 기사 파일(PDF)을 순원들과 함께 읽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순예배 간담회 관련 카드뉴스를 시청한 다음 순예배를 진행하면 된다. 순장은 순예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서 일주일 이내에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은

성도들의 삶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 모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일차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변화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성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리더십은 코로나 이후 세상 속에서 온누리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온누리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온누리교회의 당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온누리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첫걸음으로 온누리교회 순예배 간담회를 5월 중 두 차례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모임에서 선정한 주제를 토론하고 이어서 정해진 날짜에 두 차례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순모임에서 토론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세한 참여 방식과 절차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은 성도들의 삶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과 인식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 없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 이후, 다음 단계로 교회 내에서 교회가 고민할 과제들을 추려내고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은 바로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5월 3일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훈
온누리미래위원회 윤영각 장로 드림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합시다! | '순예배 간담회' 첫 번째 토론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미혼, 40대, 여성에게 묻다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가 실시된다. 그 첫 번째 토론주제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미혼, 40대, 여성에게 먼저 물었다. 질문은 “코로나 발생 이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일터, 직장, 가정, 학교, 취업과 진로 등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가 신앙생활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가 무엇인가?”, “코로나 재난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치유하며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과연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등이었다. 이 질문에 김효섭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 최규윤 순장(47세, 송파A공동체), 장지원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 장미진 성도(48세, 여성, 부천 온누리교회), 김창식 성도(42세, 요셉공동체)가 응답했다. / 편집자 주

내가 느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

김효섭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매출이 줄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변화가인 명동의 가게들이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매출이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규윤 순장(47세, 송파A공동체)은 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다. 최 순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변화를 몹시 안타까워했다.

“함께하고, 서로 나눠야 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경계하게 된 현실이 너무 슬프습니다. 사람은 본래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서로를 경계하고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지원 성도(44세, 브릿지33+공동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가 생긴 것 같아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화가 더욱 심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장미진 성도(48세, 부천 온누리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 수입이 줄어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업무가 중단되고 근무시간이 감소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재정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을 돌아보고, 여러 취미를 시도해보면서 몸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와 시사점, 그리고 과제

장지원 성도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생활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소중함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간과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김효섭 성도는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와 공동체 순모임

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오해이자 교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식 성도(42세, 요셉공동체)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일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감사함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해온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규윤 순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이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음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누리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김효섭 성도는 코로나 이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의 기본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독교의 기본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늘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사회 변화에 적절하고 건강하게 반응하면서도 성도의 본분만은 늘 간직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진 성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아, 과부, 이방인, 억압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온유한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 이웃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윤 순장은 온누리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소 비운동’과 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역 한 가지씩만 실천한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과 본질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바란다

장지원 성도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물질주의, 유물론적 사고가 만연한 혼탁한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은 오직 교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작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노력을 이어나가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효섭 성도의 말이다.

“저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들을 더러 목격합니다. 한번은 어느 교회에서 공사대금을 절반만 주면서 나머지 절반은 현금한 걸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도 마음이 몹시 불편했는데 안 믿는 사람(공사업자)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규윤 순장은 요즘 한국 교회를 ‘상자 안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잡고 있는 원숭이’에 비유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변화를 주문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상자 안에 있는 바나나를 버리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히는 모양새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평양대부흥운동이 죄의 고백과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돌아보고, 교회 스스로 더욱 참회하며,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을 살리고, 다시 깨어나는 한국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예배 중인 서초B공동체 성도들.

5월 11일, 18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웹이나 등 활용한 토론회 이후 온누리교회 미래 방향 설정에 적용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 5월 11일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순예배 간담회’를 실시한다.

순예배 간담회는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온누리교회가 준비하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골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와 인식을 교회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통로가 바로 ‘순예배 간담회’다.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실시되는 ‘순예배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첫째, 공동체 담당목사가 순장교육에서 순장들에게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위한 순예배 간담회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둘째, 온누리신문(5월 3일자, 10일자)에 보도된 ‘순예배 간담회’ 관련 기사 파일(PDF)을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읽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순예배 간담회 관련 카드뉴스를 시청한 다음 순예배를 시작한다.

셋째, 순장들은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서 1주일

이내에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5월 11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직장, 가정, 학교, 취업 및 진로에서)’,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시기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불태우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불태우고 정결하게 회복할 부분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개인차원에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하면 된다.

5월 18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교회, 신앙생활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차원에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교회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등을 주제로 토론하면 된다.

온누리미래위원회에서는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의견을 파악한 다음 온누리교회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해서 성도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실시할 예정이다. 웨비나(Webinar: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해서 발제자, 토론자, 청중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해서 성도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순예배 간담회와 웨비나 등을 활용한 토론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의견과 자료들을 분석한 다음에는 교회가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을 추려내고 논의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설정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미래위원회(위원장 윤영각 장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순예배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누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미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순예배 간담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을 위한 Q&A〉

Q.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은 무엇을 위해 만든 건가요?

A. 5월 둘째 주(11일 주간)와 셋째 주(18일 주간) 진행할 두 차례 간담회 개최 배경과 순예배 진행 방식 설명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Q. 간담회 형식의 순예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누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걸음은 우리 교회의 실패점 같은 순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이번 순예배에서 〈생명의 삶〉은 사용을 안 하나요?

A. 아니요, 〈생명의 삶〉도 사용합니다. 다만 이번 두 번에 한해 간담회에 집중하기 위해 〈생명의 삶〉을 간략히 나눈 후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90분 진행의 경우, 〈생명의 삶〉 30분, 간담회 60분으로 진행).

Q. 이번 간담회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A. 1차적으로는 웨비나 토론 주제 선정과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자료 분석과 당회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에 보고하여 향후 온누리교회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Q. 이번 간담회와 웹세미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A. 5월 중 간담회와 6월 중 웹세미나의 결과는 7월 중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리더십에 보고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Q. 과거에도 성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몇 차례 있었는데, 의견을 듣는데서 멈추고 어떻게 반영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닌가요?

A. 이번 간담회와 웹세미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먼저 단순한 일방적인 설문조사에 그치는게 아니고, 순예배에서 진솔한 토의가 먼저 진행됩니다. 한 달 간 순예배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됩니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 간에 실시간 양방향의 의견교환을 위해 웹세미나를 갖게 되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달 간의 두 단계 과정을 거친 후 7월부터는 교회 리더십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후, 논의 경과에 따라 금년 가을부터는 금년 상반기에 진행한 과정을 토대로 한 성도들과 교회 리더십 간 소통과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5월 11일 주간 토론주제

Q1. 코로나 시대에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일터, 직장, 가정, 학업, 진로 영역)

Q2. 코로나 시대의 이러한 변화가 나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Q3. 이 시기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불태우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개인차원에서 불태우고 정결하게 회복할 부분은 무엇일까?

Q4.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차원에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 진로 영역)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합시다! | ‘순예배 간담회’ 두 번째 토론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청년, 주부, 차세대 부모, 자영업자에게 묻다

5월 11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그 두 번째 토론주제를 청년, 주부, 차세대 부모, 자영업자에게 먼저 물었다. 질문은 ‘코로나 발생 이후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신앙, 가정, 직장, 학원) 차원, 교회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교회를 새롭게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교회 및 성도의 본질 회복) 등이다. 이 질문에 박세혁 형제(35세, 여호수아공동체, 자영업), 유소영 성도(42세, 차세대 부모, 온라인마켓 운영), 장민구 성도(49세, 브릿지33+공동체, 회사원), 송윤숙 성도(42세, 주부, 부천 온누리교회)가 응답했다.

/ 편집자 주

코로나 발생 이후 느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

장민구 성도(49세, 브릿지33+공동체)는 회사원이다. 원래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삶이 단 순해짐을 경험했다.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다보니 혼자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전보다 생활이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세혁 형제(35세, 여호수아공동체)는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그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다.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막히고 멀어졌지만 역설적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유소영 성도(42세, 차세대 부모)는 온라인예배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눈짓, 말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송윤숙 성도(42세, 주부, 차세대 부모) 또한 가정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고백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집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더욱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개인)

유소영 성도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거나 물을 아껴 쓰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형제는 코로나 이후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정이 상당히 제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눈과 힘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민구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읽기’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믿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송윤숙 성도도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개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온누리교회)

박세혁 형제는 코로나 이후 온누리교회가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형식, 제도, 방법 등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예배의 본질과 형식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소영 성도는 온누리교회 차원의 캠페인성 사회참여도 좋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작은 섬김을 하자고 제안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사랑 캠페인도 좋지만, 순이나 성도 개개인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만 참여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섬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숙 성도는 온누리교회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나 성경 애니메이션 등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민구 성도는 평신도들이 온누리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신도가 목회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평신도의 역할이 확대되면 신앙과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

박세혁 형제는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기도, 큐티 등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앞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과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큐티 등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송윤숙 성도도 교회와 성도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말씀중심의 양육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힘써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이방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는 교회, 체계적인 차세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소영 성도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성도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이 곧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시스템을 모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을 바꾸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바뀌어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구 성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굳건하고 질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 신앙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낮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하고 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 연약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교회와 성도는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각성, 회개가 일어나야 굳은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로 나뉜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앞으로 세상은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한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인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그 때문인지 요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는 말이 유행이다. 포스트 코로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양상과 추이를 의미하는 용어다.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일수 없다. 그래서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인류를 변화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며 인류를 변화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시대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이다.

흑사병, 세계 역사를 바꾸다

흑사병은 14세기 중반(1348~1350년 무렵) 발생했다. 중국에서 3천만 명, 이집트에서는 하루 1만 명이 사망했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엄청난 재앙이었다. 이 흑사병은 중세 유럽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결과를 낳았다. 중세사회를 지배하던 봉건제도를 몰락시키고 자본주의, 인본주의, 르네상스, 1차 산업혁명을 낳는 산과 역할을 했다.

중세 유럽은 영주가 농노(노동자)를 착취하는 봉건사회였다. 그러나 흑사병이 발병하면서 농노들이 대거 목숨을 잃자 노동자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봉건 영주들은 농노 이탈 방지를 위해 임금과 처우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부유해졌다. 부유해진 농노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었고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숨진 친척들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중산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과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단초가 바로 이것이다.

흑사병은 인본주의와 르네상스를 낳기도 했다. 중세 유럽은 교회(가톨릭) 중심사회였다. 그들은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전염병이 수도사의 목숨까지 수도 없이 앓아갔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신학보다는 과학과 문학에 더욱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태동이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흑사병은 1차 산업혁명(노동의 기계대체)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 MIT 교수 피터 테민에 따르면 농노들의 임금향상은 비용 감소를 위한 대체재를 찾게 하는 원인이 됐고,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를 찾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흑사병은 종교개혁도 촉진시켰다.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은 기계화를 유발했고, 노동력 부족은 144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

한 인쇄술을 발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인쇄술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실 흑사병의 피해는 유럽보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더욱 극심했다. 그런데 유럽의 흑사병만 유독 화제가 된 이유가 뭘까? 바로 흑사병으로 인해 중세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고,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변화에 순응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이처럼 흑사병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고 건강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마부들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주저하다가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놓쳐버린 영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정작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 때문이었다. 1865년 ‘적기조례(Red Flag Act; 붉은 깃발법)’가 만들어졌다. 적기조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한 대의 자동차에 운전수, 기관원, 기수 3명의 운전수가 있어야 하고,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기수가 앞에서 마차를 타고 ‘뒤에 자동차가 오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깃발을 흔들면서 가야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또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내에서 32km/h, 시외에서 64km/h로 제한했다. 당시 증기자동차의 주행속도가 30km/h 이상이었는데 마차보다 천천히 가야 하는 자동차를 타라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 규제의 부작용이 컸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터무니없이 규제하는 동안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꽃을 피웠다.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한 나라였지만,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포기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적기조례는 1896년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쇠퇴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마부들의 일자리가 사라

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

중국 여러 도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제 격리조치가 실시된 3월 이혼율이 25%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가정폭력도 증가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으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게 도리어 독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악영향이다.

코로나는 경제와 교육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의 보편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었고, 각 회사들은 그동안 인사관리 매뉴얼에는 없었던 재택근무 관리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영화에서나 보던 화상회의를 하는 각국 수장들의 모습이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다. 일상에서도 화상회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되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개학하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각 학교들이 온라인 강의(화상 강의) 체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과 원격의료플랫폼 개발 등 IT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막아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LG CNS(IT 서비스 기업)는 안면인식만으로 자동결제 가능한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개발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안면인식이 가능하고, 결제과정에서 기계나 사람 간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 코로나19같은 전염병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나19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말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재편될 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온누리교회가 ‘온누리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간담회를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회, 코로나 이후 길을 묻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는 2차 '순예배 간담회' 6월 웨비나 개최, 7월 교회 리더십 논의 예정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인 '순예배 간담회' 그 두 번째 순서가 5월 18일 주간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예배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5월 11일 주간과 5월 18일 주간 두 차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가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은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와 인식, 코로나 이후 성도 개인과 교회에 바라는 점 등을 교회가 겸허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순예배 간담회다.

순예배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첫째, 공동체 담담목사가 순장교육에서 순장들에게 순예배 간담회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순장들은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 진행순서, 토의 자료 및 토론 주제 등을 숙지 및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순예배 시작 전에 순장과 순원들이 토의자료를 함께 읽고,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온라인 질문지(<http://bitly.kr/O9ZHAfkvl>)'에 접속한 다음 설문내용을 미리 작성한다. 온라인 질문지는 가능한 순원 개인별로 작성하고, 순장도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순예배를 드린 다음, 미리 작성해둔 온라인 질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순예배 간담회를 실시한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순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순예배 간담회 토론을 먼저 실시한 다음, 순예배가 끝나고 3일 이내 순장이 온라인 질문지를 대신 입력해주면 된다.

순예배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도 온라인 질문지 링크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된다.

순예배 간담회 전에 온누리신문(5월 3일자, 10일자, 17일자)에 보도된 순예배 간담회 관련 기사 파일(PDF)을 미리 읽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예배 간담회 관련 카드뉴스를 시청하면 도움이 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도 관련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다.

순예배 간담회 이후에는 온누리미래위원회가 순예배 간담회에서 수집된 성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6월 중에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가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다. 1, 2차 순예배 간담회와 웨비나에서 나온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7월 중 당회에서 논의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온라인 질문지:

(<http://bitly.kr/O9ZHAfkvl>)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비상한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소수의 지도자에 의한 분별에 따른 방향 제시와 함께 공동체 모두의 참여에 의한 분별도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 순원들이 참여하는 이 간담회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훈 드림



온누리교회 선교기관 위기관리 체제 돌입

5월 비전헌금 코로나19 피해 선교지 국가 후원

2000선교본부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기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될 때까지 선교지 긴급구호 및 귀국 선교사 케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선교기관 파송 선교사들은 선교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구호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44개국에서 선교사 가정 60가구와 선교지 주민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마스크, 소독제 지원과 방역,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아시아의 한 교회는 온누리교회의 긴급구호를 받고 나서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자”며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르완다의 파스칼 목사는 “

이 구호품은 가난한 가정에게 희망의 표시가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보내왔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추가적인 긴급구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마련과 수요조사에 힘쓰고 있다. 이번 주일(5월 16, 17일) 봉헌하는 5월 비전헌금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선교지 국가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결정에 따라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선교사들의 귀국 항공비와 자가격리 비용, 숙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 명의 선교사가 귀국했다.

후원 문의: 02-3215-3208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8-31505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을 위한〉 Q&A



- Q. 1차 순예배 간담회를 해보니 순모임 중심으로 진행되더군요. 그럼 순에 소속되지 않거나 순에 소속되어도 사정상 순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님은 이번 간담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A.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예배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온누리신문(5월 17일자)과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링크에 간담회 가이드라인과 토의 자료 설문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2차 간담회 자료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5월 셋째 주(18일 주간)에 진행할 2차 자료는 17일(일)~18일(월) 사이에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 순장님과 순원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순모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은 온누리신문과 교회 홈페이지에 걸려둔 링크에 접속해서 토론자료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Q. 순예배 간담회를 통한 또는 직접 링크를 통한 의견을 제시할 때 성도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온누리신문(5월 3일자, 10일자, 17일자)입니다. 이것은 순장님을 통해서 이미 전달받으셨는데, 필요하면 온누리신문 홈페이지를 방문해 PDF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Q. 이번 주 2차 순예배 간담회가 끝나면 간담회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 A. 1차적으로는 웨비나 토론 주제 선정과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향후 교회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Q. 5월 간담회와 6월 웨비나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A. 5월 중 간담회와 6월 중 웨비나의 결과는 7월 중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리더십에 보고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Q. 과거에도 성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 A. 이번 간담회와 웨비나는 시작하는 출발점과 지향하는 종착점이 다릅니다. 단순한 일방적 설문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순모임에서 진솔한 토의가 먼저 진행됩니다. 한 달간 순모임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됩니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 간에 실시간 양방향의 의견 교환을 위해 웨비나를 갖게 되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7월부터는 교회 리더십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후 논의 경과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과정을 토대로 성도들과 교회 리더십 간의 소통과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Q. 3천여 개 순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간담회 결과를 누가 분석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 A. 3천여 개 순과 여기에 소속된 수만여 명의 성도님들의 의견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자료는 1차적으로 6월 웨비나를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2차적으로는 7월 중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리더십의 논의 과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2차 순예배 간담회 토론 주제

1차 간담회 주제는 ‘세상에서의 나’였습니다. 2차 간담회의 주제는 ‘신앙과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 Q1.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 Q2.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변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점과 회복해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 Q3.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4.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5.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온누리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6. 5번 질문처럼 교회의 최우선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 개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합시다! | ‘순예배 간담회’ 5월 18일 주간 토론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대학생, 청년, 회사원, CEO에게 묻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5월 18일 주간 두 번째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주(18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눌 질문을 대학생, 청년, 회사원, CEO에게 먼저 물었다. 토론주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느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신앙생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새로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등이다.

이 질문에 박예찬 형제(25세, 대학원생, 하늘대학부), 석희진 자매(24세, 대학생, 하늘대학부), 심혜랑 자매(35세, 회사원, SNS공동체), 최병선 집사(48세, 회사원, 가정사역공동체), 김창석 집사(58세, CEO, 강동 온누리교회)가 응답했다.

/ 편집자 주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신앙생활)

박예찬 형제(25세, 하늘대학부)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모든 예배와 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영적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참여했던 예배와 모임들이 하루아침에 멈추고, 사라지면서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위기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위기감이 제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지체들과 함께 매일 밤 11시 온라인으로 라이브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들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기도회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심혜랑 자매(35세, SNS공동체)는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회적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문이 잠기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성도들의 활동 폭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와 교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또 교회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선 집사(48세, 가정사역공동체)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크리스천의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또한 차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과제도 발견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순예배에 참여하면서 크리스천 스스로의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홀로 예배’와 ‘묵상’을 통한 자기주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적절하게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취약한 자녀들을 위해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새로운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김창석 집사(58세, 강동 온누리교회)는 CEO(청년벤처창업 컨설팅)다. 김 집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

생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전통적인 교회 및 예배생활에 대한 예외 규정(온라인 예배 등)이 생기는 걸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봐야 할 때임을 절감했습니다. 새신자,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섬길 때 비대면 속에서도 공감과 복음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슈(교회차원)

김창석 집사는 미디어에 민감한 차세대를 위한 짜임새 있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세대, 특히 차세대들은 미디어에 특화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단순히 영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다 짜임새 있는 온라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특성상 자기 편한 시간, 자신이 원하는 때, 편한 자세와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당 예배와 마찬가지로 겸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헌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희진 자매(24세, 하늘대학부)는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이 위선적인 부분을 회개하고 행동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신천지), 동성애자(이태원 게이클럽)들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은 누구나 하잖아’ 같이 남몰래 타협하는 위선적인 죄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국가적 지침(사회적 거리두기)과 교회 내 방역에 힘쓰고, 작은 행동도 조심하며 정직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찬 성도는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을 회상했을 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와 더해질수록 훗날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집사도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

다.

“나중에 이 시대를 돌아보았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교회가 옆에 있어줘서 덜 외롭고 덜 힘들었다’고 회고할 수 있는 일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구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심혜랑 자매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예배당에서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 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소비운동처럼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하나씩 행한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희진 자매 또한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 나누고, 돕고, 비난하지 말고, 포용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박예찬 형제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제가 친구들(비신자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또한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김창석 집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리더십과 늘 새로이 선포되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회의 주축은 젊은 세대(30~40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연령대 리더십이 많이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연령대 성도들을 자극하고 이끌어가려면 목사님들의 새롭고 강력한 말씀 선포가 필요합니다.”

언택트 시대, 심리적 거리 가깝게 만드는 교회

교회가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역할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가고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역사가이자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내놓은 전망이다. 유발 하라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규칙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유발 하라리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견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노동, 종교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는 재시동(reboot; 리부트)의 기회다. 하드웨어의 시대가 끝나고 바이오, 사이버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토머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뉴노멀! 감염증이 기술(텔레프레젠스: 실물 크기 화면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봇 배달 등)진보를 강제했다”(넬 왓슨 싱귤래리티대 미래학자).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쏟아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들이 이렇게 나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측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단어가 ‘뉴노멀’이다. 뉴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표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모델들이 급부상했었는데 이 또한 일종의 뉴노멀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표준이 무엇일까? ‘사회적 거리두기’(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의 일상화’(위생관념), ‘재택근무’(직장 및 근무환경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뉴노멀이다. 그 핵심에는 ‘언택트(비대면)’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 ‘언택트’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 외출 자제, 재택근무, 대중 집회 및 행사 참석 자제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는 ‘인사’에 관한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보건당국은 악수 대신 팔꿈치를 가볍게 부딪치는 팔꿈치 터치나 손을 흔드는 인사를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식사문화도 바꾸어놓았다. 회식 문화가 사라지는가 하면, 사내 식당을 비롯한 여러 식당에서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하거나 테이블 중간에 투명판넬(벽)을 설치해서 비말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직장 및 근무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

표적인 것이 재택근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3월 1,0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했거나 시행예정인 기업이 40.5%(441개사)로 조사됐다. 10대 그룹은 물론 IT기업들이 재택근무 대열에 적극 동참했다. 프리랜서 인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프리랜서 비중이 전체 노동인구의 35~40%에 이른다. 일본도 프리랜서가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 ‘언택트(untact; un+contact)’ 개념이 깔려있다. 언택트는 ‘접촉(contact)’이라는 말에 부정(前)을 뜻하는 ‘un’이 결합해서 생긴 신조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지난 2017년 10월 출간된 〈트렌드코리아 2018〉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기술 발달로 인한 비대면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신세대의 심리적 성향을 주목하는 의미로 사용했었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단어가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일상에서의 대면접촉을 줄이는(비대면) 생활방역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 바람이 가져온 단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언택트 기술(영상회의 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는 비대면 대출반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도 등장했다. 국내 한 회사에서는 안면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커뮤니티화폐’ 서비스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원격교육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부상했다.

언택트는 기존의 뉴노멀을 쇠퇴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단적인 예가 공유경제의 침체다. 코로나19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에 타격을 줬다. 우버는 전 직원의 14%(3천7백 명)를 해고한다고 했고, 에어비앤비는 전체 인력의 25%(1천9백 명)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언택트의 싹 싹 키워줘야 한다

언택트는 교회의 일상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공예배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신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트



“공동체 안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겠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변화이자 역할이다.”

렌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온누리교회 역시 CGNTV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순예배, 온라인 양육까지 성도들의 예배와 영성생활, 성도 간 교제와 목양에도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았다.

언택트는 사람이나 기계를 접촉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편한 기술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타인과의 접촉을 꺼림으로써 개인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기계를 통한 소비와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람과의 소통 감소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언택트 문화를 확산시킨 기술 발전(AI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IoT, VR 등)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언택트 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니어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마켓 이용을 못하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주문을 못해서 원하는 햄버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모처럼 재개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언택트는 불편함과 소외감, 사회와의 단절을 불러오는 그림자가 있다.

유일한 통로 교회가 편리함 이면에 숨어 있는 언택트의 삭막함을 풀어줘야 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변화이자 역할이다.

온누리교회는 온라인 양육, 온라인 기도회, 화상 순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등으로 영적 손실과 공예배의 허전함을 메우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시점에 심리적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순예배 간담회 및 웨비나 등을 활용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교회 방향 설정에 활용하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언택트 시대 심리적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다.

토머스 프레이 소장(미국 다빈치연구소)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교회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미 막 올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변화와 역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